

아내를 돌보는 남성노인의 성인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과정

조 원 지(서울대학교 연구교수)

I. 배경

한국 사회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누가 부양할 것인가에 대한 노인 돌봄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전통적인 노인부양체계 약화는 그동안 노인 수발에 있어 주된 역할을 맡아왔던 며느리와 아내를 포함한 여성의 돌봄 역할 부담의 가중에 대한 초점을 둔 논의가 이루어졌다 (e.g., Chee & Levkoff, 2001; Chun et al., 2007; Kim & Lee, 2003; Kim & Min, 2006). 비록, 노인돌봄에 있어 주가족수발자에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노인들은 인구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인구와 가족 변화와 함께 새로이 조명되어야 하는 주수발자로서의 남성노인들의 질환 또는 장애로 고통 받는 부인을 돌보는 경험 그리고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와 적응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다. 아내를 돌보는 남성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소수의 연구들은 여성 부양자들의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부담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노인 돌봄이 여성의 일임을 재차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성 노인들의 돌봄의 과정은 여성들의 돌봄의 과정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Han & Son, 2009; Han & Lee, 2009). 이러한 점에서, 남성 노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돌봄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 몇몇의 질적 연구들은 남성 노인들의 네러티브를 통하여 주부양자로서의 전이 경험 또는 돌봄에서의 역할 수행의 경험을 제시하였다 (Lee & Kim, 2009; Lee, 2005; Choi et al., 2000). 이들 연구들은 남성 노인들은 노인돌봄의 상황에서 여성 주수발자와 마찬가지로 노인 수발을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비규범적인 생애사건으로 받아들이며, 부인을 돌봄의 과정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성인지적 관점(gendered perspective)에서 바라보던 노인돌봄의 담론에서 벗어날 때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남성 노인들의 돌봄 경험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로서, 주수발자로서의 역할과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 노인의 돌봄 경험에 대한 다차원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에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주돌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아내를 돌보는 남성 노인들의 점진적인 증가는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와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과 규범의 변화 속에서 노인 돌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에 앞서, 이들의 돌봄의 경험에 있어, 남성노인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서의 돌봄 역할에 따른 변화와 적응에 있어서 남성 노인

시각으로부터의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 돌봄에서의 주부양자로서 자녀의 역할을 강조했던 한국 사회의 돌봄 패러다임 속에서 남성 노인의 돌봄 과정에서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재정립 과정을 통해 남성 노인에게 있어 돌봄과 가족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돌봄 문화의 지속성과 변화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성 노인들과 그들의 자녀와의 관계의 변화를 통해 남성 노인들이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돌봄의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노인의 돌봄 과정에서의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변화와 재정립의 경험을 통하여 남성 노인의 돌봄의 경험을 심층적이고 이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접근으로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남성 노인들의 부인 돌봄 과정에서 성인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남성 노인들의 부인 돌봄과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풍부한 네러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동일 경험자의 수집을 위하여, 수도권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성노인으로서, 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아내를 돌보는 주부양자로서 인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남성노인들에게 접근 그리고 수집은 조사연구자의 개인적 인맥, 사회복지기관, 구청, 노인복지센터, 종교기관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009년 5월 20일부터 7월 22일간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병원 또는 집 등을 포함한 돌봄의 장소 또는 그들이 편안하게 여기는 공간 (커피숍, 노인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한 시간에서 세 시간 동안 아내 돌봄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본 기간 동안 총 23명은 본 연구조사에 참여하였다. 대부분의 면접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뒤 녹음하고 녹음자료를 전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인터뷰와 조사내용에 대한 필드노트 (field note)를 기록하였으며, 전사된 녹음자료와 함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인터뷰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62세에서 82세 이였으며, 60대 연령의 남성은 7명, 70대 연령의 남성은 13명, 80대 연령의 남성은 3명이였다. 이들의 자녀의 수는 매우 다양하였다. 한 명의 연구참여자는 7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으며, 5명은 4명, 10명은 3명, 2명은 2명, 1명은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19명의 남성 노인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며, 4명의 남성 노인은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인터뷰 당시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14명의 남성 노인은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노부부 단독가구였으며, 3명의 남성 노인들은 부인과 성인자녀와 거주하고 있었다. 아내의 노인요양시설로의 이동 후, 1인 단독가구가 된 남성 노인은 3명이였다. 아내의 사망으로, 1인 단독가구로 지내는 남성 노인은 1명이였다. 그 외에, 아내와 이혼한 자녀와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남성 노인은 1명, 부인의 노인요양시설로의 이동 후, 미혼자녀와의 거주하는 남성 노인은 1명, 그리고 부인과 손자녀와 거주하는 남성 노인은 1명이였다.

돌봄 궤적을 살펴본 결과, 19명의 남성 노인은 인터뷰 당시까지 주수발자로서 아픈 부인을 돌보고 있었다. 그 중, 16명은 그들 집에서, 3명은 병원에서 그들의 수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외 4명의 남성 노인들은 부인의 사망 또는 노인요양시설로의 입주로 인하여 그들의 주수발자로서의 역할을 완료한 상태였다. 연구참여자의 돌봄 기간은 매우 다양했다. 짧게는 4개월 이였으며, 최장의 기간은 19년 이였다. 이들 중, 8명의 남성 노인은 1년에서 5년 동안 부인을 돌봐왔으며, 7명의 남성 노인들은 5년에서 10년의 기간동안 돌봄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6명의 남성 노인들은 10년 이상의 수발 경험을 보였다. 모든 남성 노인들은 장기요양의 주 책임자로서 돌봄에 참여하고 있었다. 현재 수발 역할이 진행 중인 이들이 대부분이였으므로, 이들의 돌봄의 기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남성 노인들이 돌보는 부인의 건강상의 문제는 매우 다양했다. 만성질환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건강상의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들의 다발적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인의 건강문제의 궤적과 남성 노인의 돌봄 궤적은 살펴보면 지속적 또는 회귀적인 모습을 보였다.

III. 연구결과

부인의 건강상 문제가 나타난 후, 이들 남성 노인들은 주돌봄자로서, 혼자서 아내를 돌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남성 노인들은 그들의 아내 돌봄의 역할과 책임을 그들의 성인자녀들이 공유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신, 남성 노인들의 일부는 부인 돌봄의 과정에서 돌봄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인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돌봄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주수발자가 아닌 주된 비공식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지자로서의 참여는 허용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남성 노인들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자녀의 돌봄 상황에 참여를 저지함으로써 또는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돌봄 상황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성인자녀들의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돌봄의 물리적/심리적 공간과 성인자녀들과의 삶의 공간간의 거리를 두는 과정을 보였다.

1. 성인자녀와의 지지적 관계 형성하기

남성 노인들은 부인을 돌보는 역할을 자신의 주된 책임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성인자녀들은 남성 노인들의 돌봄 책무를 공유를 강력하게 거부하였다. 그 대신, 부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운 책무 또는 상황들을 적응 또는 해결하는 돌봄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돌봄 책무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들의 성인자녀와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성인 자녀들은 돌봄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비공식적인 지원망으로서, 문제 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돌봄의 상황에서 남성 노인들은 하나의 돌봄의 전략으로서, 자녀들의 지원을 통해 그들의 주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성 노인들과 그들의 아내의 지지자로서 남성 노인의 돌봄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였다. 성인자녀들은 경제적, 도구적, 또는 정서적 지지 또는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노인 수발 과정에서 남성 노인들과 그들의 부인에게 가장 중요한 비공식적인 지원망이 되었다. 예를 들면, 아내 돌봄 역할로 인한 시간적 그리고 물리적 제약으로 경

제활동이 어려운 남성 노인들은 생활비, 병원비, 또는 돌봄과 관련된 비용을 성인자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원받음으로써 그들의 돌봄의 역할을 지속하였다. 또는 남성 노인들이 직업 역할 또는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하는 외부의 일(e.g., 가족행사 참여, 처방전을 위하여 병원 방문 등)로 인하여 돌봄 역할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성인 자녀들은 예비 또는 보완적 부양자로서 남성 노인들이 주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동안 그들의 역할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주부양자의 빈자리를 채우기도 하였다. 또한, 장기적 돌봄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아내를 위하여 남성 노인들은 심리적 안정감 또는 치료과정에서의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방편으로서 자녀와의 잦은 전화통화나 방문을 통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성인 자녀들과의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성인자녀들과의 지지적 관계 형성은 주돌봄자로서의 남성 노인들의 돌봄 능력을 보완해줌으로써, 그들이 주수발자로서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돌봄의 상황이 수발을 받는 아내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자녀와 거리두기

부인을 돌보는 상황에서 남성 노인들은 대부분 성인 자녀들과의 물리적 또는 정서적 거리를 둠으로서 그들간의 삶의 공간을 분리하였다. 남성 노인들의 자녀와의 거리두기는 부모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성인 자녀들의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걱정, 염려함과 동시에, 돌봄에 대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어머니의 질환 또는 장애로 자녀 그들만의 가족과 직장과 같은 생활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선택으로, 돌봄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녀들의 지원조차도 거절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아내 돌봄의 역할은 배우자로서 자신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역할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과 자녀들의 삶의 공간을 분리하고자 명확한 경계를 지었다. 그러나, 일부 남성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물리적 거리, 또는 자녀 자신들의 삶의 우선성에 의해 돌봄 상황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자녀들과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비의도적으로 자녀와의 거리두기를 부모로서 자녀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그리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를 외면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현 경제적 상황이 과거 자신들의 부모로서의 부족함을 원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자신들과 거리를 두는 자녀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고립감을 드러냄으로써, 이들은 자녀와의 삶의 공간과 분리된 돌봄 상황에서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하였다. 자녀와의 거리두기는 남성 노인들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가족역할의 연장선상에서의 하나의 선택이었지만, 자녀와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돌봄의 장소는 정서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노부부만을 위한 매우 사적인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또한 보여주었다. 이로 인하여, 일부 남성 노인들은 성인 자녀를 포함한 외적 공간과의 명확한 경계를 가지는 사적인 돌봄 공간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3. 성인자녀와의 관계 변화

아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과정(지지적 또는 분리적 관계)을 통하여 남성 노인들은 그들 성인 자녀에 대한 태도와 정서적 관계에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선,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남성 노인들은 질환 또는 장애로 고통받는 아내를 돌보는 과정에서 비록 그들이 주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한 어려움을 자녀의 지원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자녀와의 심리적 돌봄 공동체로서 인식하면서, 자녀와의 정서적이고 물리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경험하였다. 이는, 남성 노인들의 돌봄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주수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동시에, 자녀와의 지지적 관계를 통해 가족 기능과 응집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기회로 돌봄 과정을 받아들였다. 자녀들의 효심을 매우 자랑스러워 함으로써 부모로서의 만족감과 자신의 돌봄의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감 또는 스트레스를 감소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남성 노인들의 돌봄 스트레스와 고통을 외면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망과 좌절 또는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오히려, 자녀들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은 남성 노인들은 자녀의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한 미안함과 자녀의 외면을 부모로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인의 주돌봄자로서의 자신의 역할 지속을 공고히 하는 과정을 만들어 갔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하여, 아내를 돌보는 과정에서, 돌봄의 역할을 자신의 주된 역할로 인식하는 남성 노인들은 돌봄 상황에서의 자녀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구분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과정에서 자녀와의 지지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한 경우,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를 만드는 동시에, 남성노인 그리고 가족의 돌봄의 역할 수행 능력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는 질병 또는 장애로 고통 받는 아내의 돌봄 상황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성인자녀들의 삶과의 정서적 또는 물리적 분리를 경험한 남성 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보였다.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양가적인 감정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주돌봄자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된 과정에서 일부 남성 노인들은 자녀의 지원의 부재 속에서 돌봄 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함께 고립감과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는 노부부만을 위한 사적 돌봄의 공간에서 돌봄의 질과 노부부의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적 공간으로 변해가는 돌봄의 공간에서 자녀와의 정서적 그리고 물리적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남성 노인들의 돌봄의 과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과정은 한국 사회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노인돌봄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그동안 노인 돌봄에서 강조되었던 ‘효(孝)’담론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또한 수명연장

과 노부부가구의 증가 속에서 노인 돌봄에서 배우자의 역할 중요성의 증가는 노부부의 돌봄 공간에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지원 또는 서비스 개입의 기준으로서의 아들 가족에게 주책임을 부여하였던 기존의 '효' 담론과 부인 또는 며느리의 주돌봄자로서의 참여를 촉구하는 '성인지적 규범(gendered norm)'을 벗어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가족구성원들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 사회 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Lee, H.(2005). Caregiving experience and adaptation process of the husbands who are caring for wives with Alzheimer-Focusing on elderly couple household.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1), 45-62.
- Lee, S. & Kim, H.(2009). Elderly husbands' caregiving for their sick wives: Narratives of husbands and wives. *Family and Culture*, 21(4), 63-94.
- Chee, Y. & Levkoff, S.(2001). Culture and dementia: Accounts by family caregivers and health professionals for dementia-affected eld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6(2), 111-125.
- Choi, K. & Eun, Y.(2000). A theory construction of the care experience for spouses of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1), 122-136.
- Chun, M., Knight, B. & Young, G.(2007).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models of emotional distress among Korean, Korean-American and White-American caregivers. *Aging & Mental Health*, 11(1), 20-29.
- Han, G. & Lee S.(2009). The effect of motivation and social support on burden of spouse caregivers: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683-699.
- Han, G. & Son, J.(2009). The effect of motives for caregiving and family relationship quality on caregiving burden/reward of the spouse caregivers of frail elderly in Korea: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Family and Culture*, 21(2), 81-109.
- Kim, J. & Lee, E.(2003). Cultural and noncultural predictors of health outcomes in Korean daughter and daughter-in-law caregivers. *Public Health Nursing*, 20(2), 111-119.
- Kim, S. & Min, S.(2006).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family caregivers of frail older people in Korea. *Social Policy and Society*, 5(2), 399-408.

아내를 돌보는 남성노인의 성인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과정

성 미 애(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아내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가는지를 살펴본 연구로, 노인 돌봄의 주체는 곧 여성으로 인식되어 오던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주체에 대한 지평을 확대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높은 연구이다. 특히 아내를 돌보는 남성노인 자체를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심층면접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높다.

특히 100세 사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새롭게 돌봄 주체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볼 때, 자녀의 노부모 돌봄보다는 배우자 돌봄 또는 자기 돌봄이 많아질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아내 돌봄 기간도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분석 과정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대상자는 62세에서 82세 남성노인으로, 20년 정도의 연령 차이가 있으며, 아내 돌봄 기간도 최소 4개월부터 최장 19년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서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아내의 질병 수준이나 남성노인이 지각한 아내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아내 돌봄 수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성인자녀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도 차이가 있을 것이나 이러한 측면이 분석 과정에서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내의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남성노인이 지각한 아내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서 분석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분석 결과를 성인자녀와의 지지적 관계 형성하기, 자녀와 거리두기, 성인자녀와의 관계 변화로 제시하였는데, 성인자녀와의 지지적 관계 형성하기와 자녀와 거리두기는 일관된 연구 결과로 보여지지 않으며, 성인자녀와의 관계 변화는 앞의 두 주제와는 차원이 다른 맥락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코딩 과정에서 제시된 주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남성노인이 아내를 돌보면서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측면을 아내 발병 이전의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맥락에서 재구성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아내를 돌보면서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재정

립해가는 과정은 이전의 부모-자녀관계의 맥락과 함께 분석되어야 연구의 제목처럼 부모-성인
자녀관계가 재정립되는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할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 돌봄의 주체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효 담론에서 벗어나 돌봄-피돌봄의 상황을 통해 부모-자녀관계의 본질 및 근본적
인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큰 연구라고 할 수 있다.